

[ 종합·해설 ]

지방선거 D-8

여야, 광주·전남 표심잡기 총력

5·31 지방선거 현장

우리 "호남표 결집을" 민주 "부동층 우리표"

5·31 지방선거가 중반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22일 서로 승리를 장담하며 광주·전남지역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가뜰스나 불리한 선거관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정동영 당의장까지 나서 광주에서 호남공약에 재시동을 걸었다. 우리당은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선거전이 중반을 넘기면서 앞서가던 지역에서는 승세가 굳어졌고 뒤져왔던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기 시작, '추월은 시간 문제'라며 승리를 장담했다.

민주당은 박 대표 피습사건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앞서가던 선거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다고 보고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등 필승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층이 줄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확연

우리당 정동영의장 광주 유세하며 호남 공약 재시동 민주당 광주서 정책선거 선포식 갖고 '3행1불' 약속 박재순·박웅두 후보도 구례·진도 등서 지지 호소

히 불어나고 있다며 광주는 전 지역 석권, 전남은 3분의2 석권 목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말바우시장~광주우체국~첨단지구로 이어지는 거리유세를 진행하며 광주에서 호남표 결집의 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유세에서 "광주시민의 희성이 있어 오늘의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에게 지방선거를 결코 내줄 수 없다"면서 "행정전문가이자 경영마인드까지 갖춘 조영택 후보를 광주시장

으로 꼭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도 "거지말만 잘하는 정치인 출신을 선택하지 말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전문가인 저를 선택해, 광주를 진짜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역설했다. 같은 당 서범석 전남도지사 후보는 이날 함평과 나주, 화순 등 전남 중서부권 유세에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등 광주지역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선거 선포식과 정책자료 발간식

을 갖고 "정책선거·클린선거·시민참여 선거를 실시하고, 네거티브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3행 1불'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도 이날 같은 당 김성 장흥군수 후보 사무실에서 김 후보와 보성 정중해·강진 황주홍·완도 박현호 군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남부권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발표회를 갖고 중남부권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박재순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심재철 의원의 지원 아래 구례·곡성·담양 등지에서 유세를 통해 '토박이 일꾼이자 행정의 달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박웅두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천영세 의원의 지원 아래 진도 일대를 돌며 '농업수도 건설, 한미FTA 반대' 등의 농어촌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 등은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우체국 앞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등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22일 박 후보 사무소에서 '정책선거 선포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박광태 후보 지지싸고 양노총 대립

○한노총과 민주노총이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2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박 후보가 시장으로서 최적임자"라며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박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광주는 부산과 대구를 앞지를 만큼 수출이 늘었고 노사 협력의 싸이 뜨는 등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박 후보 측과 정책연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지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한국노총의 행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노동자적 행위"라며 "노동자·민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상대 후보 고소

○'열린우리당 김중식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22일 민주당 전주인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9일 모 방송사와 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전 후보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고 시청자들을 기만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1천400억원의 국비를 가져와 주민숙원사업을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 후보는 '내가 알기로 5개 구청 중에서 (서구청이) 예산을 가장 적게 가져왔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이학 부착 명함 배포 눈길

○전주인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22일부터 상단에 색동으로 접은 종이학을 부착한 명함을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후보는 "후보를 알리기 위해 나눠주는 명함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 특색있는 방안을 생각했다"며 "주민들과 익숙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화진 후보 공약 발표

○김화진 광주 남구청장 후보는 22일 ▲대촌 민속촌 건설 ▲진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직동 아시아음악터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천500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촌·안촌동 일대 59만 6천평에 고싸울 전승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민속촌을 건립하고 진월저수지 일대 7만여평에 호수영화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포함된 생활체육공원을 만들 것을 공약했다. /채희중기자 chae@/보성=안구원기자 giahn@

강운태씨, 최영호 후보 격려

○강운태 전 국회의원이 22일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 등 남구지역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 격려했다. 전남 황일봉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를 격려했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최 후보와 채선필(남구 2선거구 광역의원)·김선순(남구가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등을 찾아 승리를 기원했다.

오현섭 후보 "박람회 반드시 유치"

○오현섭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22일 성명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류를 계기로 범국민적 공감대와 30만 여수시민의 역량을 총결집, 2012년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여수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012 세계박람회 유치로 여수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신순범 전 의원은 지난 22일 오 후보 사무소를 방문, "여수시민들은 준비된 행정전문가인 오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김강식 후보, 장애인 공약 발표

○김강식 열린우리당 여수시장 후보는 22일 장애인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복지관을 갖춘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통한 장애인 편의 증진 ▲저상버스 2007년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용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보성군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용주 후보는 22일 보성을 동운동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문 후보는 이날 ▲녹차브랜드로 해양관광타운 조성 ▲효의고장 육성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시대가 원하는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진석 후보 '남도 관광벨트화'

○해남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무소속 정진석 후보는 21일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을 배경으로 인접 시군과 연대를 통해 배우면서 즐기는 테마관광, 체험관광, 문화관광을 발굴 육성,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도 관광벨트화" 추진을 선언했다. 정 후보는 세부 사업으로 ▲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 10분내 고속도로 도로망 확충 ▲산학연계를 통한 고급 관광인력 양성 ▲동계훈련 중심지 발돋움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등을 제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권자 한사람 6표 찍는다

5·31 지방선거가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6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1인6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기존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더해 이번 선거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1인5표제'가 1인6표제로 바뀐 것.

선관위는 종전에는 투표소마다 5개의 투표함을 배치했지만 투표용지 증가로 인한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2개의 투표함만

두고 투표함당 3장의 용지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키로 했다.

유권자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한 뒤 2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를 하면 된다.(그림 참조)

투표용지 색깔은 연두색(기초단체장),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 백색(광역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청회색(비례대표 광역의원)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High School Academy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duview (에듀뷰넷)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 경찰학원)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udeung High School Academy (무등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 Academy (광주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 경찰학원)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한빛공무원학원)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